

0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
 ㉢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④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01 문법-현대문법-품사

[문제해설]

- ㉠~㉣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의존명사이다.
 ㉠ 것: 관형어 뒤에서 자립성이 없는 것은 형식성 의존명사이다.
 ㉡ 따름: 관형어 뒤에서 자립성이 없는 것은 형식성 의존명사이다.
 ㉢ 만큼: 관형어 뒤에서 자립성이 없는 것은 형식성 의존명사이다.
 ㉣ 분: 앞에 '한, 두, 세, 네'를 붙일 수 있으므로 단위성 의존명사이다.

[오답체크]

- ①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자립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답 ④

02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경찰직 2차

- ①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②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③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④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서,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있다.

02 문법-현대문법-품사

[문제해설]

- ② 국어의 품사 중에는 접속사라는 말은 없다.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말은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②는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체크]

- ①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③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은 불변어인데, 가변어인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모두 불변어이다.
 ④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답 ②

03 다음 한자어와 한글 독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경찰직 2차

- ① 尿素-요소 ② 匿名-익명
 ③ 理髮-이발 ④ 雙龍-쌍용

03 문법-국어생활-맞춤법

[문제해설]

- ④ 단어의 첫음절 초성에만 두음법칙이 적용되므로, 단어의 둘째 음절인 '룡'의 초성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쌍룡'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체크]

- ① ② ③ 단어의 첫 음절 초성에 'ㄴ/ㄷ'이 왔고, 그 뒤에 'ㅣ' (ㅣ 모음 계열 이중모음도 포함) 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답 ④

04 다음 <보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영선: 냉장고에 토마토 ㉠ 재워 났다. 먹어.
 철이: ㉡ 깨우면 돼?
 영선: 뭘?
 철이: 개그가 ㉢ 안 통하네.
 영선: 뭐? ㉣ 자는 거 먹어. 눈치 ㉤ 못 채게.

- ① ㉠은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이다.
 ②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동사이다.
 ③ ㉢과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다.
 ④ ㉣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04 문법-현대문법-문법 표현

[문제해설]

- ② '깨우다'는 '깨(다)+우+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때 '우'는 사동접미사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오답체크]

- ① '재워'는 '자(다)+이우+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우'는 사동접미사이다. 따라서 사동사라고 해야지 피동사라고 하면 안 된다.
 ③ 의지 부정이 아니라,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④ ㉠은 사동 표현, ㉡은 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은 '자게 하다', ㉡은 '자다'의 뜻이다.

답 ②

05 다음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근대 국어 시기에 방점 표기 및 ‘ㅇ’과 ‘ㅅ’이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 ㉡ 고대 국어의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 ㉢ 중세 국어 시기에 ‘피, ㅁ름’은 각각 한자어 ‘산(山), 강(江)’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고유어가 눈에 띄게 없어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습-, -줍-, -습-’(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05 문법-고전문법-국어사

[문제해설]

국어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다.

- ㉠ 고대: 통일신라시대까지
- ㉡ 중세 전기: 고려시대
- ㉢ 중세 후기: 조선 전기
- ㉣ 근대: 조선 후기
- ㉤ 현대: 1933년 이후
- ㉥은 조선 후기, 즉 근대 국어의 특징이다.

[오답체크]

- ㉠ ‘ㅇ’은 17세기 후반, ‘ㅅ’은 17세기 초반 경 소실되었다.
또 방점 표기도 17세기에 사라졌다.
- ㉡ 향가에서는 ‘상대 높임’에서 사용하던 선어말 어미 ‘이/잇’ 등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 조선 전기 한글 창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선어말 어미들이 정확하게 구사되었다.

답 ㉢

0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 철이는 영선이를 사랑한다.
- ㉣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 ㉠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서술절이다.
- ㉡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 ㉢ ㉢에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 ㉣에서 부사어 ‘영선이에게’와 목적어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은 비문(非文)이 된다.

06 문법-현대문법-문장

[문제해설]

㉡ 부사어 ‘엄마와’를 생략하고 “영선이는 닮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므로 비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사어는 필수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성분이다.

[오답체크]

-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는 홑문장이다.
- ㉢ ‘관형어, 독립어, 서술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2자리 서술어이다.
- ㉣ ‘영선이에게’와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어순이 되므로, 오히려 국어의 정상 어순에 맞는 표현이 된다.

답 ㉡

07 다음 <보기>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만을 고른 것은?

- ㉠ 대가(○) / 댓가(×)(代價) ㉡ 초점(○) / 좇점(×)(焦點)
- ㉢ 뒤풀이(○) / 뒷풀이(×) ㉣ 아래층(×) / 아랫층(○)
- ㉤ 해님(×) / 햇님(○)

- ㉠ ㉠ ㉡
- ㉢ ㉢ ㉣
- ㉤ ㉤ ㉥

07 문법-국어생활-맞춤법

[문제해설]

사이시옷의 표기가 옳은 것은 ㉠ ㉡ ㉣이다.

설문 중, ㉠ ㉡ ㉣이 모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 ㉡ 또는 ㉡ ㉣이 제시된 경우도 없으므로 ㉠을 정답으로 정하면 된다.

[오답체크]

- ㉡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아래층’이 옳다.
- ㉣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해님’이 옳다.

답 ㉠

08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 ㉢ 글을 잘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 ㉣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08 문법-국어생활-비문의 유형

[문제해설]

㉠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문맥에 어울린다.

[오답체크]

- ② 서술어 '지배하기도 한다'의 목적어가 없다.
 ③ 목적어 '신문을'과 서술어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의 의미 호응이 안 된다.
 ④ 서술어 '선물하였다'의 주어가 지나치게 생략되었다.

답 ①

09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 ① 재계 3위의 갑부(甲富)는 과연 누구일까?
 ② 그분은 청년들의 애환(哀歡)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③ 공무원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④ 김 부장의 사위는 흰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才媛)이다.

09 문법-국어생활-비문의 유형-어휘의 호응

[문제해설]

③ '불편부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에 잘 어울린다.

[오답체크]

- ① '갑부'는 '첫째 가는 큰 부자'를 뜻하는 말이므로, '3위의'라는 관형어와 호응하지 않는다.
 ② '애환'의 '歡'은 '기쁨'을 뜻하므로,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말과 호응하지 않는다.
 ④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이므로 여성에게만 써야 한다. 따라서 남성을 뜻하는 '사위'와 호응하지 않는다.

답 ③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경찰직 2차

-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 크다.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③ 영화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다.
 ④ 불펜, 연필, 지우개 따위를 문구류라 한다.

10 문법-국어생활-띄어쓰기

[문제해설]

③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이라기보다는'처럼 모두 붙여 써야 한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합리적(명사)+이기(서술격조사)+보다(비교 부사격 조사)+는(보조사)

[오답체크]

- ① '장대'는 체언이므로 그 뒤의 '만큼'은 조사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붙여 썼으므로 띄어쓰기가 옳다.
 ② '너'라는 체언 뒤의 '뿐'과 '이다'는 모두 조사이다. 따라서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모두 붙여 썼으므로 띄어쓰기가 옳다.
 ④ '따위'는 격조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 체언인데, 자립성이 없으므로 의존명사이다.

답 ③

11 다음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경찰직 2차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
 리에 ㉠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
 할 이 ㉡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 쭈쭈
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굴뺨이
 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 ①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② ㉡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③ ㉢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④ ㉣ 곤충의 한 종류.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문법-국어생활-우리말

[문제해설]

㉢의 '쭈쭈스럽게'는 '매우 귀찮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뒤에 나오는 '파리 떼도 ... 귀찮다'라는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적어도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체크]

나머지는 모두 문맥에 어울린다.

답 ③

12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 ①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②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③ 김기림, 정지용 등의 시인들은 감성보다 지성, 리듬보다 이미지에 호소하는 주지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④ 이 시기의 시는 3.1 운동의 좌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 의식의 영향으로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으며, 황석우, 홍사용, 박영희 등이 대표적이었다.

12 문학-현대문학-현대문학사

[문제해설]

③ 김기림, 김광균, 정지용 시인을 중심으로 한 주지시는 1930년대에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1934년에 나온 『삼사문학』을 통해 활동하였다.

[오답체크]

- ① 「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1917년에 나왔다.
 ② 민족어 말살 정책이 본격화한 것은 1940년대이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제의 문인 탄압은 더욱 더 가혹해졌다.
 ④ 3·1운동 실패 이후 좌절적 분위기는 이후 1920년대 문학에 반영되었다.

답 ③

13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 ②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 창조 신화이다.
- ④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시조인 단군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3 문학-고전문학-설화-단군신화

[문제해설]

③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 신화이지 천지 창조 신화가 아니다.

[오답체크]

- ①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담고 있다.
- ②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이 농경 사회였으며,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광명사상, 인간 존중 사상, 하늘 숭배 사상, 산악 숭배 사상, 동물 숭배 사상, 천부지모사상, 선민사상 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④ 단군은 '환인(하느님)'의 손자이며, 그가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답 ③

14 다음 ㉠과 ㉡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 ① ㉠의 시는 ㉡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 ② ㉠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는 ㉡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 ③ ㉠의 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시는 ㉠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14 문학-현대문학-시

[문제해설]

④ ㉠과 ㉡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작품이 더 발랄하다거나 더 감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모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탐구'라는 철학적, 관념적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현대인의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사랑'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주제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발랄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체크]

- ① ㉠은 ㉡를 패러디(parody)하여 재창작함으로써 원작과는 다른, 작가의 독특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은 ㉡에 나오는 '꽃'의 의미를 뒤집어 현대 사회의 인스턴트 식(式) 사랑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의 '전파, 라디오'와 ㉡의 '꽃, 무엇, 눈짓'은 서로 대응되는 시어들이다.
- ③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라는 대목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현대인의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사랑'을 뜻한다.

답 ④

15 다음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鳥獸哀鳴海岳嘸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 「절명시(絶命詩)」

- ① 이 시는 『매천집(梅泉集)』에 실려 있다.
- ② ‘새’와 ‘짐승’, ‘강산’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식인의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 ④ 고려 멸망의 소식을 접하고 순절(殉節)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15 문학-현대문학-한시
 [문제해설]
 ④ 이 시는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상황에서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고자 하는 심경을 그려 낸 ‘매천’ ‘황현 선생’의 작품으로 망국에 대한 선비의 통분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멸망이 아니라 조선의 멸망이 그 제재가 되는 것이다.
 [오답체크]
 ① 이 시는 1910년 황현(黃玟)이 지은 한시로 칠언절구의 4수로 구성되어 있다. 김택영(金澤榮)이 편한 『매천집(梅泉集)』(7권, 1911, 상해) 권5에 수록되어 전한다.
 ②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새’와 ‘짐승’은 화자의 ‘슬픔’을, ‘강산’은 화자의 ‘고통’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③ 절구인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답 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문항]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쳐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피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게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련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대한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땀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 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 16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16 비문학-구성-글의 전개 방식

[문제해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 주제가 나온다.

마지막 단락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정리해 보자.

㉠ 화제: 문학과 건축

㉡ 중심내용: 길동무(=道伴), 맞상대

따라서 이 글은 ㉣처럼 문학과 건축 간의 특성이 서로 통함을 바탕으로 두 대상이 함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체크]

① 문학과 건축 간의 차이점이 진술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비유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글의 주제를 서술하는 주된 방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답 ④

17.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경찰직 2차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17. 비문학-주제와 소재-내용 확인하기

[문제해설]

④ 이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오답체크]

① ② 둘째 단락, 마지막 두 문장인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런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셋째 단락, 첫째 문장인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에서 알 수 있다.

답 ④

18. 다음 <보기> 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17. 경찰직 2차

까마득한 날에

(㉠)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아우사 땅(阿烏沙 땅)

① 땅-국화-영웅(英雄)

② 하늘-매화-영웅(英雄)

③ 땅-국화-초인(超人)

④ 하늘-매화-초인(超人)

19. 문학-현대문학-시

[문제해설]

이 문제는 「광야」라는 작품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맥으로 따진다면 ㉢에는 ‘영웅’도 들어갈 수 있고, ‘초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들어갈 단어는 순서대로 ‘하늘-매화-초인’이다.

[오답체크]

① ‘열리고’라는 표현과 아울러 생각해 보면, ‘하늘’이 더 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② ‘눈 나리고’라는 표현과 아울러 생각해 보면, 겨울에 피어나는 꽃인 ‘매화’를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① ③은 답이 아니다.

답 ④

19.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어오니 () 아니겠는가? 이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 ① 一刀兩斷 ② 一魚濁水
- ③ 一望無際 ④ 一舉兩得

19 한문－한자어－한자성어

[문제해설]

앞뒤 문맥을 살펴 보자.

㉠ 화제: 이주 노동자 유입

㉡ 중심 내용: 일꾼+문화 유입

따라서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는 한 가지 일로, ‘노동력’ 문제도 해결하고, ‘문화’도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④의 ‘일거양득’과 관련된다.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오답체크]

- ① 일도양단: ㉠ 칼로 무엇을 대변에 쳐서 두 도막을 땀. ㉡ 어떤 일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뜻 결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일어탁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일망무제: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답 ④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7. 경찰직 2차

미국 정부는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① 記密-類出-認知-噓出 ② 記密-類出-認智-索出
- ③ 機密-流出-認知-索出 ④ 機密-流出-認智-噓出

20 한문－한자어－한자어 쓰기

[문제해설]

괄호안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③이다.

㉠ 記: 기록할(기) / 機: 베틀(기) ㉡ 機密: 베틀에 걸린 실(날줄)을 뽁뽁하게 촘촘하게 배열한다는 뜻에서 온 말

㉢ 類: 무리, 종류, 나눌, 묶을(류) / 流: 흐를(류)

㉣ 知: 알(지) / 智: 지혜로움(지)

㉤ 索: 찾을(색), 쓸쓸할(삭) / 噓: 핥을(색)

[오답체크]

- ㉠ ‘유출’은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내는 것’이므로, ‘종류(류)’를 쓴 ①과 ②는 답이 아니다.
- ㉢ ‘인지’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이므로, ‘지혜로움(지)’보다는 ‘알(지)’가 더 잘 어울린다. 따라서 ④는 답이 아니다.

답 ③